IBKS Spot Comment

에너지/소재

이동욱

02) 6915-5671
treestump@ibks.com

[에너지/소재]
이수스페셜티케미컬, 후속 증설 시 투자비 50% 절감 가능

올해 상반기 중 황화리튬 상업화 플랜트 증설 완료 예정

전고체 배터리 핵심 소재 제조업체인 이수스페셜티케미컬은 세계 황화리튬 수요 확대에 대응하기 위해 선제적인 설비 투자를 집행하고 있다. 지난해 9월 착공한 울산 온산 공장 증설은 기존 데모 플랜트를 넘어 본격적인 상업화 플랜트로 전환하는 의미를 가진다. 이수스페셜티케미컬은 올해 6월까지 기존 연산 40톤에서 150톤으로 생산능력을 약 3.7배 확대할 예정이며, 이는 주요 수요처의 양산 일정에 최적화된 대응으로 판단된다.

또한 이수스페셜티케미컬은 2029년까지의 중장기 대규모 투자 계획을 수립해 규모의 경제를 기반으로 원가 경쟁력 확보와 시장 지배력 강화를 동시에 추진하고 있다. 아울러 이번 마더 플랜트 투자에는 향후 연산 500톤 규모까지 확장 가능한 기반 설비가 포함돼 있어, 후속 증설(+350톤) 시 톤당 Capex는 기존 대비 약 50% 가량 절감될 것으로 전망된다.

더불어 국민성장펀드를 통한 1,000억원 규모의 정책자금 저리 대출을 확보함에 따라, 추가 증설에 필요한 자금 조달도 이미 마무리된 상태다.

솔리드파워, 국내 500톤 규모 고체전해질 JV 검토

최근 미국 솔리드파워가 올해 2월 실적 컨퍼런스콜에서 언급한 한국 내 연산 500톤 규모의 연속식 고체전해질 합작투자 구상은 국내 소재 생태계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솔리드파워는 핵심 지식재산권과 공정 노하우를 제공하고, 한국 파트너가 자본 투자와 제조를 담당하는 기술-자본 분업형 모델을 제시했다. 이는 솔리드파워가 재무 건전성을 유지하는 동시에 한국의 우수한 제조 역량을 활용해 스케일업을 가속화하려는 전략적 판단으로 해석된다.

특히 솔리드파워가 올해 말까지 자체 파일럿 라인을 연산 75톤 규모로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점은 내부 기술 검증이 사실상 완료 단계에 진입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한편 황화물계 고체전해질 상업화의 핵심 병목 중 하나는 황화리튬 등 핵심 원재료의 안정적인 공급이다. 실험실 단계에서는 전해질 조성 경쟁이 중요하지만, 상업화 단계에서는 결국 황화리튬의 연속적 대량 조달 체계 구축 여부가 경쟁력의 핵심 변수가 되기 때문이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 리서치본부에서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한 것이나 당사는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며, 과거의 자료를 기초로 한 투자참고 자료로서 향후 주가 움직임은 과거의 패턴과 다를 수 있습니다. 고객께서는 자신의 판단과 책임 하에 종목 선택이나 투자시기에 대해 최종 결정하시기 바라며, 본 자료는 어떠한 경우에도 고객의 증권투자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그림 1. 이수스페셜티케미컬 황화리튬 마더 플랜트 준공 현황

자료: 이수스페셜티케미컬, 인터배터리 2026, IBK투자증권

그림 2. 이수스페셜티케미컬 황화리튬 제품 사진 1

자료: 이수스페셜티케미컬, 인터배터리 2026, IBK투자증권

그림 3. 이수스페셜티케미컬 황화리튬 제품 사진 2

자료: 이수스페셜티케미컬, 인터배터리 2026, IBK투자증권

Compliance Notice

동 자료에 게재된 내용들은 외부의 압력이나 부당한 간섭없이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여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동 자료는 기관투자가 또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동 자료는 조사분석자료 작성에 참여한 외부인(계열회사 및 그 임직원등)이 없습니다.
조사분석 담당자 및 배우자는 해당종목과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동 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율 1%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당사는 상기 명시한 사항 외 고지해야 하는 특별한 이해관계가 없습니다.